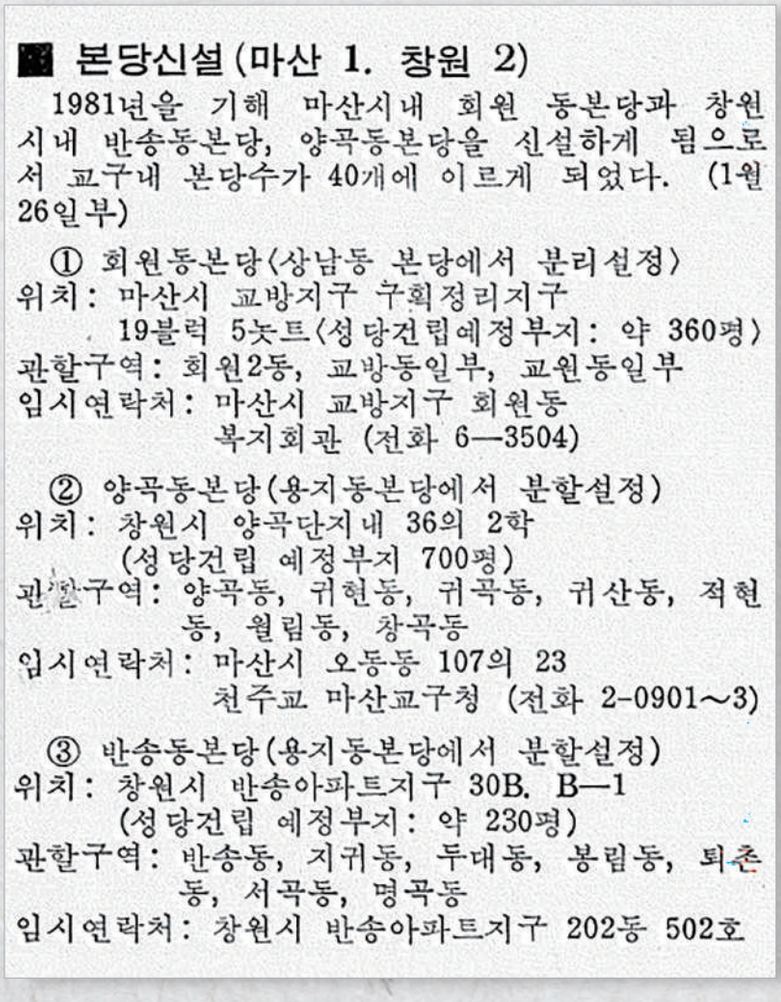
가톨릭마산

연중 제20주일
2026년 8월 16일
제2735호

듣는 강론

홈페이지 https://cathms.kr 채널 천주교마산교구 cpbc Radio FM 101.7MHz



■ 본당신설(마산 1. 창원 2)

1981년을 기해 마산시내 회원 동본당과 창원시내 반송동본당, 양곡동본당을 신설하게 됨으로서 교구내 본당수가 40개에 이르게 되었다. (1월 26일부)

① 회원동본당(상남동 본당에서 분리설정)
위치: 마산시 교방지구 구획정리지구
19블럭 5놋트(성당건립예정부지: 약 360평)
관할구역: 회원2동, 교방동일부, 교원동일부
임시연락처: 마산시 교방지구 회원동
복지회관 (전화 6—3504)

② 양곡동본당(용지동본당에서 분할설정)
위치: 창원시 양곡단지내 36의 2학
(성당건립 예정부지 700평)
관할구역: 양곡동, 귀현동, 귀곡동, 귀산동, 적현동, 월림동, 창곡동
임시연락처: 마산시 오동동 107의 23
천주교 마산교구청 (전화 2-0901~3)

③ 반송동본당(용지동본당에서 분할설정)
위치: 창원시 반송아파트지구 30B. B—1
(성당건립 예정부지: 약 230평)
관할구역: 반송동, 지귀동, 두대동, 봉림동, 퇴촌동, 서곡동, 명곡동
임시연락처: 창원시 반송아파트지구 202동 502호

마산교구보 제372호 1981년 2월 15일 연중 제6주일

본당신설(마산 1, 창원 2)

1981년을 기해 마산시내 회원동본당과 창원 시내 반송동본당, 양곡동본당을 신설하게 됨으로서 교구내 본당수가 40개에 이르게 되었다. (1월 26일부)

① **회원동본당(상남동 본당에서 분리설정)**
위치: 마산시 교방지구 구획정리지구
19블럭 5놋트(성당건립 예정부지: 약 360평)
관할구역: 회원2동, 교방동일부, 교원동일부
임시연락처: 마산시 교방지구 회원동 복지회관
(전화 6-3504)

② **양곡동본당(용지동본당에서 분할설정)**
위치: 창원시 양곡단지내 36의 2학
(성당건립 예정부지: 700평)
관할구역: 양곡동, 귀현동, 귀곡동, 귀산동, 적현동, 월림동, 창곡동
임시연락처: 마산시 오동동 107의 23
천주교 마산교구청(전화 2-0901~3)

③ **반송동본당(용지동본당에서 분할설정)**
위치: 창원시 반송아파트지구 30B. B-1
(성당건립 예정부지: 약 230평)
관할구역: 반송동, 지귀동, 두대동, 봉림동, 퇴촌동, 서곡동, 명곡동
임시연락처: 창원시 반송아파트지구 202동 502호

교황님의 기도지향
도시 복음화

익명성과 고독이 만연한 대도시에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일 전례

WYD SEOUL 2027 MASAN 2027 세계청년대회 마산교구대회 2027. 7. 29~8. 2 D-347

제 1 독 서	이사 56,1.6-7
화 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제 2 독 서	로마 11,13-15.29-3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마태 15,21-28
영 성 체 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하동본당 주임
정연동 세바스챤 신부

‘부스러기’라도…

+ 찬미예수님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본당에 부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병자성사를 갔었습니다. 사지는 앙상하게 말랐고 눈은 무섭게 튀어나왔으며 복수가 가득 찬 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를 하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을 와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남편은 5여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서른여덟 젊은 엄마는 세 아들을 두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친척도 보호자도 없는 아이들은 천애고아(天涯孤兒)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미사 중에도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둘 곳이 없는 세상에, 울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마냥, 아이들은 덤덤히 엄마를 보냈습니다.

애가 타는 것은 미사에 참례한 어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막내 세영이는 엄마가 아파 누워있을 때에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많이도 울었다 합니다. 아마도 삶과 죽음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애라도, 비록 믿음과 부활의 신비를 알 수 없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가슴속에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기도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비정하게도, 하느님은 세영이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매달려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무가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았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느님을 원망하는 성토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오히려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장례미사 중에 세영이를 보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구걸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저 이쁘고 착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난할지, 세영이에게 주어질 십자가가 미사 내내 아프기도 했고, 끝내 ‘부스러기’도 주지 않으시는 하느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미사를 드렸는지도 모르게 미사는 끝이 났고, 세영이는 엄마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세영이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목하시는 윤종두 신부님의 도움이 컸고, 무엇보다 우리 착한 신자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반찬도 챙기고, 옷도 사주고, 건강도 살피고, 공부도 봐주는 …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영이네 3형제가 마치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아기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영이네 3형제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 앞에 펼쳐질 세상이, ‘부스러기’라도 빌어야 하는 세상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 없는 메아리가 아니라, 끝내는 하느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을 뿐입니다. 기어이 매달리는 믿음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방인 여인의 저 간절한 믿음을 보며, 무너져내릴 것 같은 아니 이미 무너져버린 인생마저도, 믿기만 한다면, 정말로 믿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신다는 사실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세영이가 살아갈 인생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마태 15,28)”

구약의 기적을 AI시대에서 볼 수 있다니

가톨릭문인회
윤혁재 레오 시인

영화 〈대부(God Father)〉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 주인공인 비토 꼴레오네가 뉴욕에서 자기 고국 이민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의 대부가 되었다. 그 이후 비토는 이민 동포의 현지 어려움을 이용해 그들의 가난마저 야금야금 빼앗아 자기의 부와 권력을 누린다.

대부, 생뚱맞게 어느 날 낡아진 자신의 노구를 끌고 어린 손자 깔깔깔 대는 해맑은 소리 함께 정원 속으로 들었다. 여태까지 총 들고 이웃을 괴롭혀 세상의 온갖 권력과 부를 누렸던 그 옛날의 근성을 마다하고, 아이러니하게 손자처럼 해맑았던 자신의 어릴 적 웃음 되찾아보려 누더기처럼 다 헤진 낡은 맘을 유체이탈적 생각으로 손자의 웃음 따라가다 그만 옛적에 잃어버린 정원의 맑은 공기 흠뻑 맞고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다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바닷속에다 이집트 군대를 빠트린 기적처럼, 자신이 쏜 총에 수없이 쓰러진 이웃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하시며 맑은 공기로 악질 대부를 쓰러트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 이게 현대판 기적이 아닐까요?

어린 손자의 장난감 총보다 더 가볍게 들고 다니던 살인총으로 숱한 이웃을 하얀 슬픔의 창고 속으로 끌어모아 새까맣게 괴롭히더니, 손자와 숨바꼭질하던 정원의 맑은 공기에 엎어진 대부 비토 꼴레오네의 삶을 보았듯이, 나의 말과 행동에 상처 입은 내 이웃의 편에 우뚝 서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누구나 목메어 바라는 구약의 기적이 바로 이 순간에 다가오지 않을까요.

어느 날, 한 번도 둘러보지 않던 꽉 닫힌 내 맘밭 울타리 밀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화한 꽃내음 대신, 여태껏 살면서 쌓아온 온갖 생명들과 이웃에게 저질은 내 맘꽃 냄새가 시커멓게 풍겨나와 얼른 닫고 나왔지요. 지난날의 포악했던 자신의 모습이 새록새록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차별 지어, 용서해야 한다는 건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괴로운 일이라 오로지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요.

죽기 전, 언젠가는 나의 이 구린내를 몇 개라도 들춰서 내 맘의 법정에 세워보려고요. 이웃의 도둑이거나, 이웃의 살인을 방조하거나, 살아 있는 온갖 것들을 내 것으로 먼저 잡아채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먼저 살아야 내 이웃에게 공평을 나눌 수 있다는. '확증 편향적 병'에 걸린 속 맘을 내 겉은, 넥타이 번지르르 매고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않지요. 마치 내 이웃을 멋지게 배려하는 양 오늘도 스스럼없이 하늘에 대고 두 손 모둡니다.

WYD는 이미 시작되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여 뒤면 지역대회를 시작으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어지는 서울 본대회를 거치는 세계 가톨릭 최대의 청년 축제가 펼쳐집니다. 예상 참여 인원 100만 명이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을 기쁨과 환호로 채웁니다.

이번 대회는 비가톨릭국가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대회의 특성상 WYD는 이탈리아나 필리핀처럼 가톨릭 문화 국가에서 주로 열렸습니다. 이전 대회인 리스본도 유럽의 포르투갈입니다. 필리핀에서의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가톨릭 문화가 약한 나라에 가톨릭 최대의 메가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러기에 이번 대회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보다 오늘날 인류가 함께 고민하는 보편 가치가 행사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먼저 평화입니다. 한반도는 분단국가입니다. 한민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가는 곳이 이곳 한반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전쟁을 통해 드러나는 불안한 국제정세는 서울 WYD에 평화를 요청합니다. 드론과 인공지능 무기를 통해 보여지는 인간과 기술의 잔혹함은 참다운 평화는 무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평화만이 참된 평화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대회 기간 중 세계 청년이 바치는 평화를 위한 기도는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황은 청년을 만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광주의 비극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의 슬픔과 함께했다면 레오 14세 교황은 청년의 절망과 함께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일자리 부족과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삶이 절박한 청년들은 어른들이 부동산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불로소득을 마련하는 것처럼 주식과 코인 투자에 매달릴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청춘을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서울 WYD에 오시는 레오 14세 교황은 청년들을 만나 위로와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비롯한 봉사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본당 차원에서 순례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숙식을 비롯한 여러 준비도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안전한 대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에도 적극 함께해야 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환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손님 대접보다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톨릭은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하느님 사랑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들에게 보여주는 미소 하나, 기도 하나가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좋은 선교가 될 것입니다.

출처: 가톨릭평화방송(https://news.cpbc.co.kr/article/1174777)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함께해요

'2027 서울 WYD'를 응원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주제가 M/V (Classic Ver.)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주제가 M/V (Pop Ver.)

2027 WYD 마산교구대회를 위해 소중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7 WYD 마산교구대회 후원자 명단(2026년 7월 10일 ~ 7월 31일 입금분 기준)

● **개인**

사림동 백균철(바오로) 1,000,000원/ 옥수진 10,000원/ 신선원 100,000원/ 금산 강금난(비비안나) 100,000원/ 금산 신주원(마르코) 100,000원/ 방미경(한미) 100,000원/ 정여람 100,000원/ 정자영 50,000원/ 진선미(바울라) 50,000원/ 한미숙 100,000원/ 여좌동 서정대(라이문도) 200,000원/ 구암동 이수정(레지나) 200,000원/ 북신동 정경애(루시아) 300,000원/ 김승남 1,000,000원/ 김효민 1,000,000원/ 이현정 1,000,000원/ 익명 500,000원/ 익명 1,000,000원/ 조명옥 100,000원/ 옥포 여선옥(아녜스) 100,000원/ 박정선 100,000원/ 익명 50,000원/ 박임순 2,000,000원/ 반송 감수연 20,000원/ 정희자 100,000원/ 김미옥 200,000원/ 강애순 30,000원/ 김정숙 200,000원/ 도정호 500,000원/ 이명선 100,000원/ 나순행 500,000원/ 최지영 1,000,000원/ 윤선희(드보라) 50,000원/ 남해 박삼이WYD 200,000원/ 장승포 익명 1,000,000원

● **기업·법인** 명인건축사사무소(호계 이승환) 3,000,000원

■ 후원자 명단은 송금자명을 기준으로 교구보에 게재됩니다. 송금자명 변경 또는 익명 게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입금 후 1주일 이내에 조직위원회(055·249·706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구보 제작 일정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송금자명으로 게재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2027 WYD 마산교구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됩니다.

2027 WYD 마산교구대회 「묵주기도 모으기 운동」

총 3,921단(2026년 8월 2일 기준)

※ 12개 수도회와 2개 성지의 묵주기도 봉헌 단수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 2026년 9월부터는 74개 본당의 봉헌 단수를 합산하여 집계할 예정입니다.

2027 WYD 마산교구대회 후원회원으로 초대합니다

후원 기간: 현재 ~ 2027년 8월 8일(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382-9920-0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일시후원·정기후원(자동이체)·정기후원(CMS 출금이체) 신청서 본당 접수 안내**

2026년 7월 16일부터 일시후원, 정기후원(자동이체), 정기후원(CMS) 신청서를 각 본당 사무실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1. 후원 방법-일시후원: 개인이 원하는 금액을 1회 후원하는 방식
   정기후원(자동이체): 개인이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후원 방식
   정기후원(CMS): 조직위원회를 통해 CMS 출금이체 신청서만 작성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후원 방식
2. 신청서 접수: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당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제출: 본당 사무실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절차: 접수된 신청서를 즉시 스캔하여 본당에서 조직위원회 E-메일로 발송(E-메일: youth3@cathms.or.kr) → 신청서 원본은 본당에서 일괄 취합한 후, 매월 1회 조직위원회로 제출

▶정기후원(CMS)은 신청서가 E-메일로 접수된 후 출금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일에 따라 최초 출금은 1회에 한해 다음 달 출금 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월 신청하신 출금 일에 출금됩니다.

4. 2026년 7월 16일 이전 계좌이체 후원자 안내: 2026년 7월 16일 이전에 후원 계좌로 일시후원 또는 정기후원(자동이체)을 시작하신 분도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송금자명만으로는 후원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후원자 확인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개인 또는 기업·법인 명의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이인 확인과 정확한 후원자 등록을 위해 송금자명은 아래와 같이 입력해 주십시오.
개인 후원자: 본당+이름, 예시) 양덕동 홍길동/ 기업·법인 후원자: 기업명 또는 법인명, 예시) 가나다라주식회사

2027 WYD 마산교구대회 준비위원회 055·249·7065, 7116

기술을 넘어 사람에게 다가가는 교정사목의 길

교정사목 담당
진동길 마리오 신부

저는 교정사목을 하면서 사람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이던 사람이, 가까이에서 만나 보면 저마다 말하지 못한 사연과 상처,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교정 시설에서 만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도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면 후회와 그리움, 다시 살아 보고 싶다는 소망을 조심스럽게 내어놓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교정사목이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복음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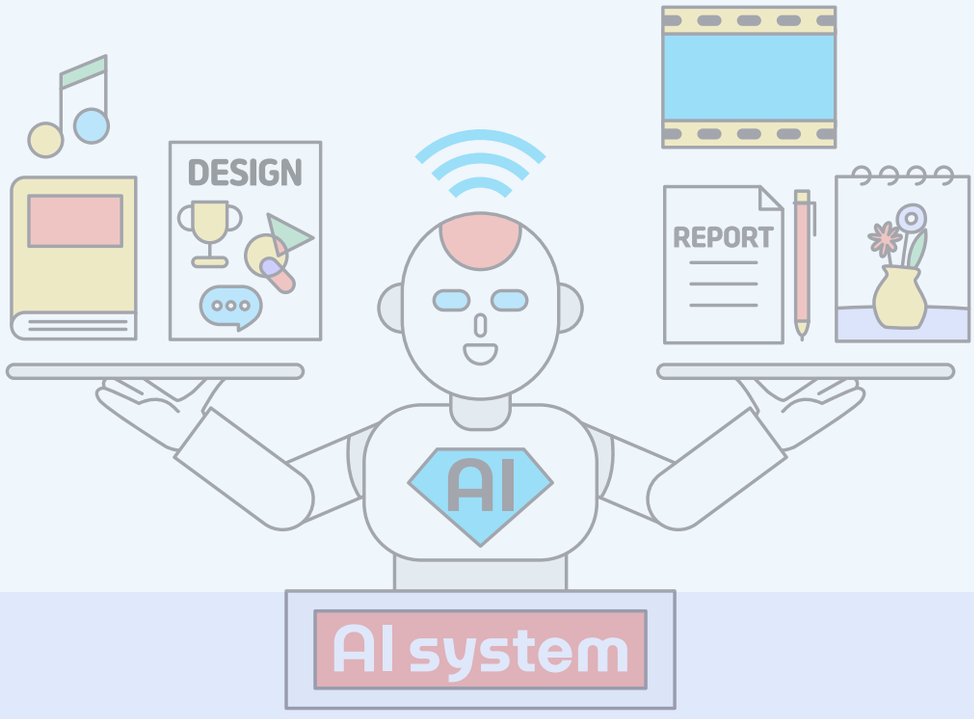
한 번은 한 분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오가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만나도 아버지라고 불러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답을 주지 못한 채, 그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잘못으로만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목이란 정답을 빨리 주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 곁에 머물러 주는 일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저는 최근 자주 접하게 되는 인공지능(AI)을 사목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접해 보니 AI는 사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자료를 정리하거나, 교리와 성경 말씀을 보다 쉽게 풀어쓰고, 전달할 문장을 차분히 다듬는 데 일정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정사목에서는 말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표현은 마음에 닿기 어렵고, 쉬운 언어와 따뜻한 표현은 상대가 마음을 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AI는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거나 전달 순서를 정리하는 데 유익하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느끼는 한계도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정리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품어 주지는 못합니다. 교정사목의 자리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담담한 표정 속 눈빛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담겨 있고, 짧은 한마디에는 깊은 후회가 스며 있곤 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어떤 기술도 대신할 수 없는 경청과 공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관계이며, 사목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정사목 안에서는 특별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민감한 개인의 사연과 정보가 오가는 만큼, AI를 사용할 때에도 편리함만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사목자는 사람의 존엄과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윤리적 책임 안에서 기술을 분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기술은 유익할 수 있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목은 효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정사목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하느님의 시선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 남아 있는 선함과 가능성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정사목은 바로 그 시선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사목의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사람은 목적입니다. AI는 준비를 도울 수 있어도,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빠른 정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는 마음이며, 변하지 않을 사목의 기준은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고 기다리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자|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신부
역자| 박문수 신부
금액| 1만 4천원
문의| 02-944-0944 바오로딸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시작되는 사랑의 기적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아버지'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섭니다. 에피코코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끄는 동시에 서로를 형제자매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시며,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이자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만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형제들의 얼굴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자| 정남진 신부
금액| 1만 4천원
문의| 02-944-0944 바오로딸

이 세상에서 별처럼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품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저자는 신학자 떼이야르 드 샤르댕 신부가 말한 이 문장에서 영감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것에서 따로 구별되어 오직 하느님께 속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일은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나 우리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들려주는 우리 삶의 의미'라는 부제에서 말해주듯이 '성경'과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길이며 소명인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무엇을 믿고 희망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의미를 묻고 찾는 이들에게 우리의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2026년 2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표

마산지구

본당	개강일	시간	과정	과목
가톨릭문화원	8월 25일(화)	10:00-12:00	일반	역사서1(지구성경반)
가톨릭문화원	8월 25일(화)	12:30-14:30	통독	사도행전·서간
구암동	8월 24일(월)	19:30-21:00	일반	역사서1
산호동	8월 27일(목)	20:10-21:30	일반	역사서2
삼 계	8월 25일(화)	10:00-12:00	통독	복음서
상남동	8월 26일(수)	14:00-16:00	지혜	시편·아가
양덕동	8월 31일(월)	10:00-12:00	지혜	루카복음서
양덕동	8월 31일(월)	19:30-21:00	일반	오경2
영 산	8월 28일(금)	10:40-12:00	은빛	호세아서와 에제키엘서
완월동	8월 27일(목)	10:00-12:00	일반	역사서1
월 영	8월 25일(화)	10:00-12:00	일반	마르코복음서
월남동	8월 27일(목)	20:00-21:30	일반	오경2
의 령	8월 26일(수)	10:40-12:00	지혜	루카복음서
의 령	8월 29일(토)	19:30-21: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진 동	8월 24일(월)	19:30-21:00	일반	역사서1
창 녕	9월 10일(목)	10:00-11:30	지혜	사무엘기
호 계	8월 25일(화)	10:00-12:00	지혜	루카복음서
회원동	8월 26일(수)	19:30-21:00	일반	루카복음서·사도행전
회원동	8월 27일(목)	10:00-11:50	지혜	사도행전

진주지구

본당	개강일	시간	과정	과목
가좌동	8월 26일(수)	19:00-20:30	일반	요한복음서
가좌동	8월 28일(금)	10:40-12:10	지혜	사도행전
거 창	8월 26일(수)	19:00-20:30	일반	바오로서간
금 산	8월 27일(목)	10:00-12:00	일반	마르코복음서
남 해	8월 26일(수)	10:40-12:10	일반	마르코복음서
사 천	8월 24일(월)	19:30-21:00	일반	루카복음서·사도행전
사 천	8월 28일(금)	10:40-12:30	일반	루카복음서·사도행전
산 청	8월 26일(수)	10:40-12:00	지혜	사무엘기
산 청	8월 24일(월)	19:30-21:00	일반	요한복음서
삼천포	8월 28일(금)	19:30-21:10	일반	역사서2
상평동	8월 26일(수)	19:30-21:00	일반	요한복음서
신안동	8월 25일(화)	10:00-12:00	일반	가톨릭서간과 요한묵시록
신안동	8월 24일(월)	10:00-12:00	통독	오경
신안동	8월 27일(목)	21:00-22:00	은빛	마태오복음서
옥봉동	8월 26일(수)	19:30-21:00	일반	마태오복음서
진주복지원	8월 24일(월)	15:00-17:00	은빛	욥기와 코헬렛
칠암동	8월 25일(화)	10:00-12:00	일반	오경2
평거동	8월 26일(수)	10:40-12:00	지혜	사도행전
하대동	8월 25일(화)	10:00-12:00	지혜	창세기

창원지구

본당	개강일	시간	과정	과목
가음동	8월 27일(목)	10:00-11:40	일반	마르코복음서
가음동	8월 29일(토)	10:00-11:00	지혜	마르코복음서
경화동	8월 24일(월)	19:30-21:00	일반	오경1
대방동	8월 25일(화)	10:00-11:30	일반	바오로 서간
덕산동	8월 24일(월)	19:30-21:00	일반	루카복음서·사도행전
덕산동	8월 25일(화)	10:00-11:50	통독	시서와 지혜서
반 송	8월 26일(수)	10:40-12:20	일반	마태오복음서(지구성경반)
사림동	8월 26일(수)	19:30-21: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사파동	8월 24일(월)	10:00-12:00	통독	예언서
사파동	8월 24일(월)	20:00-21:30	일반	마르코복음서
사파동	8월 28일(금)	10:40-12:10	일반	예언서
생림선교	9월 2일(수)	10:30-11:45	은빛	마태오복음서
양 곡	8월 28일(금)	10:40-12:00	통독	역사서
용 원	8월 24일(월)	19:00-20:30	일반	오경2
용 잠	8월 26일(수)	19:00-20:30	일반	요한복음서
장 등	8월 26일(수)	19:30-21:00	일반	오경2
중 동	8월 25일(화)	10:00-11:30	은빛	호세아서와 에제키엘서
중앙동	9월 4일(금)	10:40-12:00	지혜	창세기
진 영	8월 26일(수)	19:30-21:00	일반	마르코복음서
팔용동	8월 27일(목)	20:00-21: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거제지구

본당	개강일	시간	과정	과목
거 제	8월 28일(금)	10:40-12:00	지혜	사도행전
고 성	8월 27일(목)	10:00-12:00	일반	오경1
고 현	8월 28일(금)	10:30-12:20	일반	마르코복음서(지구성경반)
대 건	8월 27일(목)	10:00-11:50	일반	루카복음서·사도행전
북신동	8월 27일(목)	10:00-12:00	일반	마르코복음서
북신동	8월 28일(금)	11:00-12:00	지혜	마르코복음서
옥 포	8월 25일(화)	19:00-21: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옥 포	8월 25일(화)	19:00-21:00	통독	복음서
옥 포	8월 28일(금)	10:40-12:30	일반	바오로서간
장승포	8월 31일(월)	10:00-12:00	일반	마르코복음서
작은예수의집	8월 27일(목)	10:00-11:00	은빛	요한복음서
장 평	8월 27일(목)	10:30-12:30	일반	오경1
태평동	8월 26일(수)	19:30-21:00	일반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태평동	8월 28일(금)	11:00-12:20	은빛	창세기
하 청	8월 28일(금)	10:40-12:30	일반	루카복음서·사도행전

- **신청: 본당 사무실(사전 접수)**
- **문의: 055·249·7025~6 성경사목부**

※지구성경반: 교구 성경사목부 소속 수도자 강의

교구장 동정

재무평의회
일시: 8월 20일(목) 10:00
장소: 교구청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 여름연수 미사
일시: 8월 21일(금) 17:00
장소: 성심원

방문 미사
일시: 8월 23일(주일) 10:30
장소: 망경동성당

교구/본당

전국 총대리 회의
일정: 8월 18일(화)~19일(수) 1박 2일
장소: CBCK

전국 성서 사도직 세미나
일정: 8월 18일(화)~20일(목) 2박 3일
장소: 정하상 교육회관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입사
일자: 8월 19일(수)

재무평의회
일시: 8월 20일(목) 10:00
장소: 교구청

교리교사 하계피정
일정: 8월 22일(토)~23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제507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8월 23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마산교구 체나콜로 8월 기도모임
일시: 8월 24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전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35)-반송(10:45)-시티(10:50)-현대주유소(11:00)-신세계백화점(11:15)-의신여중(11:25)-교구청(11:45)
문의: 010·8771·4577 회장

교구 합창단 개학
일자: 8월 18일(화)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총회 및 사제·수도자 하계연수
일정: 8월 19일(수)~21일(금) 2박 3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연수
일정: 8월 21일(금)~22일(토) 1박 2일
장소: 성혈 영성의 집 쉼자리

광주Se. 교구간부 연수
일정: 8월 21일(금)~22일(토) 1박 2일
장소: 한국레지오마리애 기념관

기 타

cpbc 특별강좌 「고귀한 인류」
AI시대의 새로운 이정표, 교황 레오 14세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 해설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김도현 신부, 방종우 신부, 한창현 신부, 조동원 신부
방송시간: 토 8:00, 주일 22:10, 월 17:00, 수 6:50 목 21:30, 금 13:50
첫 방송: 8월 15일(토)

9월애동행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일정: 8월 15일(토)~9월 20일(주일)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방법: 순례자 여권세트 구입, 순례길 스탬프 찍기, 순례길 완주 후 축복장 수령
비고: 판매금 전액 기부
문의: 02·2269·0413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묵상회 안내
521차 교구 성령묵상회(일반)
일시: 8월 21일(금) 18:00~23일(주일) 17:00/ 회비: 20만 원
522차 교구 성령묵상회(젊은이)
일시: 8월 28일(금) 16:00~30일(주일) 17:00/ 회비: 15만 원
※ 최소 인원 미달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소: 양산 영성의 집(055·382·9465)

2027학년도 양업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내
일정: 9월 1일(화)~18일(금)까지
모집: 전국 전 지역
문의 : 043·260·5076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일상안에서의 영신수련 16주간
일시: 9월 3일~12월 17일 매주(목) 14:00~15:30
장소: 가톨릭상담 영성 센터(창원 대방동)
지도: 센터장 수녀(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문의 및 신청: 010·5180·7618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 2일 치유피정
일시: 8월 22일(토) 14:00~23일(주일) 14:00
강사: 정대영 신부, 이상기 회장, 고영민 회장
차량 출발: 부산역-4번 출구 07:30 출발
마산-김안과 앞 08:30 출발
문의: 043·213·9103, 010·8375·4600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목장 성이시돌 목장에서 쉼과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추자도 성지순례: 9.1~4, 9.17~19, 10.7~10
차귀도 순례 포함: 9.7~9, 9.12~14
올레길, 자연순례: 10.1~3, 10.2~4, 10.17~19
문의 및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8월 17일(월) 19:00	남성동성당	성령은 우리의 희망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예수 그리스도 선교 수도회)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 20:00 기도회(대상: 10~40대)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나자렛예수수녀회	매월 첫째 주 주일 14:00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055·532·4903	–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2박3일 43만원
베트남, 마카오 3박5일 120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도쿄, 아키타 3박4일 123만원
중국(상해, 북경, 마가자) 3박4일 125만원
김해공항도 출발 가능
마르코 투어 오완수 바오로 010· 4239· 1929

성바오로 무인서원
마산교구청 내 1층
통신 판매 가능
010 · 9540 · 4592

경대약국
·친절한 복약지도
·영양 복약상담
진주 외 지역은 전화상담도 가능
경상대병원 처방약은 경대약국에서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8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주차타워 맞은편)
055.755.2020
하종인 율리아노, 도승현 엘리사벳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교구 꾸르실료 제248차 남성 꾸르실료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담당 사제: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 주간: 이재희 안드레아)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남성 꾸르실료 체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 39명은 모든 일정을 은총 속에 마치며,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였다. 참가자들은 꾸르실료 정신인 '이상, 순종,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과 강의, 나눔, 기도와 전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가정과 본당, 그리고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꾸르실리스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꾸르실료는 앞으로도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와 복음화를 위해 꾸르실료 정신을 실천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데 힘써 나갈 예정이다.

신안동본당 최동현 수사, 사제 서품 및 첫미사

신안동본당 출신 최동현 예수성심의 마리프란치스코 부제(가르멜 수도회)의 사제 서품식이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가르멜영성문화센터에서 거행되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서울대교구장)의 주례로 봉헌된 이날 예식에는 가르멜회 남녀 수도자와 재속 회원, 신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새 사제를 위해 기도하였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시편 100,1)를 서품 성구로 정한 최동현 신부는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신안동본당에서 첫미사를 거행하였다.

마산교구청년성령쇄신봉사회

· 홈페이지: myhs.or.kr
· 카카오톡 채널: 마산교구청년성령쇄신봉사회

● 소개

청년성령쇄신봉사회는 교구 청년들의 신앙 쇄신과 복음화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성령세미나와 성령기도회를 비롯하여 각종 파견 봉사 등을 통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느님께 찬양과 흠숭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 역사

2004년 젊은이성령쇄신전국연합 모임의 주관으로 창원 젊음의 집에서 청년성령세미나에 80여 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통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였고, 그 가운데 봉사를 신청한 15명의 청년을 중심으로 "마산교구청년성령쇄신봉사회"는 2004년 4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13일 월남동성당 사랑의집에서의 첫 성령기도회를 시작으로 2005년 6월 4일에는 교구 청년들을 위한 1차 성령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교구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활동

◆**성령세미나:** 교구 청년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쇄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성령 안의 새 생활 세미나'(약칭 청년성령세미나)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세미나에는 2,000여 명이 넘는 청년이 참석하였으며, 살아계신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기도회:** 창립 이후부터 시작된 교구 청년들을 위한 성령기도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성령 하느님의 뜨거운 은총 가운데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000회가 넘는 기도회 안에서 많은 청년이 하느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파견 봉사:** 본당, 지구, 교구 단위로 청년 및 청소년의 신앙 쇄신을 위한 피정 및 찬양 미사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파견되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37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시: 10월 16일(금) 13:30 ~ 18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청년(20~40대)
▶참가비: 15만 원 / 문의: 010 · 6667 · 7809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19:30 ~ 21:30
▶장소: 가톨릭문화원 4층
▶대상: 청년(10~40대)
▶내용: 묵주기도, 미사, 기도회 등

36차 청년 성령세미나

교구 반석제 파견

가톨릭마산

성모 승천 대축일

2026. 8. 15.

쥬리아나 수녀(트라피스트 수녀원) 作

성모 승천 대축일

입 답 송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화 답 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 음	루카 1,39-56
영성체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해방 맞아 … 교황청, 가장 먼저 독립 승인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 '고유서' 발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날은 성모 몽소 승천 첨례일(성모 승천 대축일)이었다. 믿을 교리로 반포된 것은 1950년이지만 교회는 벌써 6세기에 '성모님의 잠드심(Dormitio)'이라는 이름으로 성모 승천을 기념하고 있었다.

국가가 해방을 맞이하듯이 우리 교회도 해방을 맞이했다. 금지된 성가를 소리 높여 부를 수 있었고, 한국어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성당의 종(鍾)이 공출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신자들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되거나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는 8월 17일 신자들에게 경솔한 행동은 삼가고, 정당한 정부가 한국에 자리 잡을 때까지 기도하자는 내용의 고유서(告諭書)를 발표하였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 성모님을 주보(主保)로 모시며, 그 전구에 힘입어 새로운 광복의 역사로 나아갔다.

교황청, 한국 독립 승인하며 교황사절 임명

1947년 교황사절로 임명된 패트릭 번 신부는 10월 9일 입국해 12일 명동성당에서 교황사절 환영회를 했다. 이는 한국의 독립을 교황청이 가장 먼저 승인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어 1949년 4월에는 교황청이 정식으로 한국을 승인하는 동시에 교황사절 번 신부를 주교로 임명하였다. 이때 장면(張勉, 요한, 1899~1966)은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대통령 신임장과 한국 주교단의 서한을 가지고 비오 12세 교황을 알현했고, 4개월 만에 교황청은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이었다. 장면은 1949년 2월 초대 주미 대사로 임명됐다.

◀1948년 10월 26일 교황사절 번 주교가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자신의 회갑연에서 내외빈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북한 교회 탄압과 성직·수도자 희생 잇따라

해방 직후부터 분단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교회도 분열의 피해를 입고 있었다. 특히 북한 지역 교회는 소련군의 후원을 받는 북한 공산당의 지배 아래 다시 탄압을 받았다. 북한 당국은 가장 먼저 성베네딕도회 덕원수도원에 박해를 가했다.

전문 바로가기

출처: 가톨릭평화신문–한국교회사연구소 공동기획, [한국 교회 그때 그 순간 40선] 38. 해방시기 한국 천주교회 가톨릭평화신문 2024년 10월 6일 제1779호 15면 참조.